



[산업] CES2021 첫 온라인 개최 삼성 등 첨단경쟁 후끈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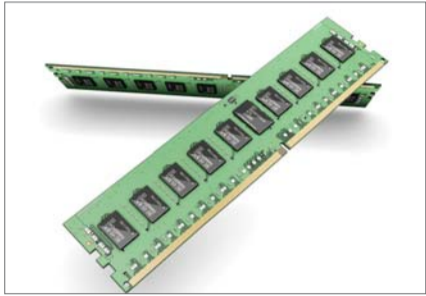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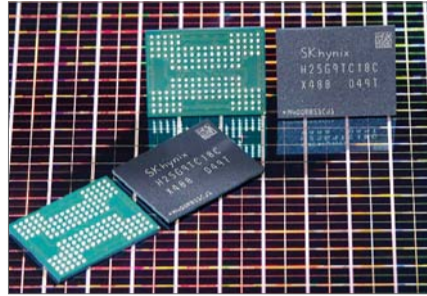
코스피	3152.18 (0.00)	코스닥	987.79 (0.00)
금리 (미국 3년)	0.978 (+0.014)	환율 (원/달러)	1089.80 (+2.50) (8일)

# “반도체서 가전·폰”... K-전자, 올 사상최고 실적 예약

전자 업계, 작년 4분기 최대 실적 삼성 영업익 9조... 전년비 25% ↑ LG 매출액 18.7조 분기역대 최대 반도체·스마트폰 등 올해 더 기대



삼성전자 D램 모듈. /삼성전자



176단 4D 낸드 기반 512Gb TLC /SK하이닉스

‘K-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 실적을 달성하며 위기속 저력을 증명해 냈다.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올해도 ‘초격차’를 앞세워 입지 다지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분기 매출액 61조원에 영업이익 9조원을 거뒀다고 지난 8일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 1.9%, 영업이익은 25.7%나 크게 늘었다. 전분기보다는 매출 8.9%, 영업이익 27.1% 감소했지만, 4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과 환율 하락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은 236조2600억원, 영업이익은 36조9500억원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2.45%, 29.46%

나 많아졌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폭 성장했다는 얘기다. LG전자도 역대급 성적을 냈다. 4분기 매출액 18조7825억원에 영업이익 6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9%, 535.6% 높은 성적을 거뒀다. 매출액은 분기로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도 4분기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 63조2638억원에 영업이익 3조19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31% 많다. 특히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도 4분기 매출액 7조원에 영업이익은 9000억원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큰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렌 목표였던 시가총액 100조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K-전자가 코로나19에서도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다. 비대면 강화로 서버와 PC 등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앞세워 시장 주도력을 더욱 높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3분기까지만 14조9600억원으로 전년(14조2000억원) 수준을 넘어선 상태, 4분기에도 4조원 가량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도 3분기까지 영업이익 4조467억원으로 전년(2조7127억원) 연간 실적보다 2배나 올라섰으며, 4분기 가격 하락 등 악재 속에서도 최종 5조원 가량 연간 영업이익을 낼 전망이다.

가전 사업도 ‘대박’이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늘어나면서 생활가전과 신가전 수요가 늘어난데다가, 위생이 중시되면서 청정 가전도 큰 폭으로 성장한 덕분이다.

LG전자 생활가전(H&A) 부문은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하며 경쟁력을 증명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미국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 달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삼성전자도 3분기까지만 영업이익 2조7400억원, 전년(2조6100억원) 영업이익을 벌써 넘어섰다.

올해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전자 업계 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파운더

리 시장이 대폭 커지면서 삼성전자 사업 안정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쟁사인 TSMC가 생산량을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 인텔까지 차세대 제품을 파운더리에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에 시장 점유율 20%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스마트폰 판매도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1월 갤럭시S21을 조기출시하는 등 신제품 공개를 가속화하는데 이어 LG전자도 롤러블폰으로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프리미엄 TV 시장도 올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일본 도쿄 올림픽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니 LED TV를 내놓으며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중국 TCL이 미국 무역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북극 한파에 얼어붙은 한강

북극 한파가 연이어 찾아온 10일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에 얼음이 얼어 있다. 한강에 결빙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2년 여 만이다. /뉴시스

#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피해 계층 선별 지원해야”

홍남기 부총리 “국가신용 부담”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당시 기획재정부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11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은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반대를 관철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내 논의, 국회 협의 구조가 있다”며 “재정 당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지만, 최종의 사결정에서 관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기재부는 보편지급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비록 당시에도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같은 의견을 제기할 것이고,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평균보다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서울 기준은 8만3000호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 부족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부족 요인이 가장 크고 이어 정상적인 수요 증가, 투기적 수요, 정책 미흡, 부동산 투기 수요 등이 (부동산)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제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협상 물꼬

# 매매계약시점 특정하지 않기로 ‘합의’

협상 난항 주요원인 해결

지난해 서명식이 무산된 이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던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송현동 부지’ 협상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이른바 ‘송현동 부지’를 놓고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 조정회의가 하루 전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무산된 이후 계속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서명식이 무산된 주요한 이유였던 ‘매매계약시점’ 관련 쟁점은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난항을

겪고 있던 협상에 일부 물꼬가 트였다는 평이다.

앞서 송현동 부지 관련 양측을 중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최종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서명식 하루 전날인 25일 서울시가 조정문안 중 일부를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교체할 요청하면서 합의안 체결은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서울시가 시의회의 부동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조정문안의 매매계약시점 관

련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서명식 무산의 주요한 원인이 됐던 매매계약시점의 특정 여부는 이미 양측이 협의를 본 상태다. 본 사안에 정통한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매매계약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매매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것을 대한항공이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낮은 보상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한항공이 이 같은 조건을 수긍하기로 한 것은 의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